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11. 21 ~ 2021. 12. 11 제257호



포토에세이

영혼 안에 심어 두신 하나님의 형상 찾기



▲ 차드의 아이들. 제공: WMM

“친구야! 같이 놀자. 여기에 앉아 봐. 내 옆으로 붙어. 다리를 쭉 뻗어봐. 발을 모아보자.”

모래밭에 앉아 좁은 어깨들을 포개고, 손도 모으고, 다닥다닥 붙어 앉은 것으로 놀 준비 끝. 친구들의 다리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노래를 부르다 노래가 끝날 때 걸린 친구가 술래가 된다. 서로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모양의 발가락을 보며 웃기도 한다. 친구의 따뜻한 체온을 통해 기쁘고 즐거운 마음들을 공유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낸다.

아이들은 보았을까? 내 것과 친구들 것을 비교해 가며 웃었던 그 발가락과, 친구의 체온과, 활짝 핀 웃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말이다. 영혼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미로운지, 꼭 발견하길 바란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오”(창세기 1:27)

[GNPNEWS]

중국 성도 60명, 한국서 망명 거부당해 중국 강제 송환 위기

한국 망명을 거부당한 ‘선젠성결개척교회’ 성도들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핍박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5일 판용광 목사를 비롯한 중국 ‘선젠성결개척교회’ 성도 60명의 2차 망명 신청을 기각했다. 10월 19일 중국으로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이들은 또 다른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전 세계 종교의 자유 지지자들이 ‘메이플라워 교회’라고도 부르는 이 성도들은 2019년 중국을 떠나 제주도로 왔고, 한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는 동안 막노동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 왔다.

순교자의소리(VOM) 현숙 폴리 대표는 이들의 망명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몇 주 안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전문가들은 성도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핍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앞서 VOM은 지난 2년간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핍박에 대응하는 법을 훈련

시켜 온 바 있다.

폴리 대표는 “원래 ‘메이플라워’라는 배는 1620년, 영국의 핍박을 피해 도피한 102명의 청교도 순례자들이 ‘신세계’에 데려다 주었다.”며 “제주도로 건너온 ‘현대판 메이플라워’ 성도들은 한국에서 얻고자 애쓰던 종교의 자유를 부여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부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 대표는 이들이 망명 거부에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있다면 “이 성도들은 우리의 핍박 훈련과 판용광 목사님에게도 잘 훈련받았다.”며 “판 목사님과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국 같은 나라에 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혹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시더라도,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판 목사는 2012년, 미국 ‘필라델피아 성서개혁

교회(Philadelphia Bible Reformed Church)의 감독 아래 ‘선젠성결개척교회’를 세웠다. 판 목사는 외국 종교 단체와의 이러한 관계 때문에 2014년부터 주 2회 이상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 판 목사가 중국 공산당이 승인한 ‘삼자애국운동’ 가입을 거부하자, 당국은 교회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건물주를 압박해 이들을 퇴거시켰다. 무신론과 공산주의를 세뇌시키는 국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성도들은 2019년 투표를 통해 교인 전체가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성인 28명과 어린이 32명은 관광객으로 가장, 거의 맨몸으로 제주도에 도착했다.

이에 VOM은 자신들을 비롯,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돕는 ‘차이나 에이드’ 및 다른 국제 단체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줬다면 이들이 중국으로 돌려보내지면 투옥과 강제 실종, 고문 같은 극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GN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41)

‘자아(自我)’는 스스로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때부터 고만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옳은 줄 알겠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한데, 아무리 애를 써도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습니다. 전에는 환경, 조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날수록 상황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결국 문제는 나 자신, 자아(自

我)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다다른 사람이 시작하는 일이 ‘자아 길들이기’와 ‘자아 죽이기’입니다.

여기 그런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결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이놈의 자아를 죽여야 되겠다. 오직 원수는 바로 내 자아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로 결

단하며 내 발부터 “탕!”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떤 자아의 몸부림도 허용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사심이 사라지니 객관적으로 문제가 보이고, 정확히 사리 분별이 됩니다. 맑은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또 무슨 짓을 하나.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난리를 치는구나. 나를 마저 못 박아야겠다.’ 그러나 두 발과



일러스트=김경선

한쪽 손을 차례차례 못 박아도, 남아 있는 다른 한쪽 손에 스스로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죽었지만, 완전히 죽지 않은 자아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자아 죽이기’마저 불가능한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내 안에 시퍼런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진리에 온전한 믿음으로 화합한 자는 더 이상 자아를 죽이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삼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1670-3160

2021 다시복음앞에, '그 영광을 회복하라' 12월 12~15일, 온라인으로



▲ 2019 다시복음앞에 대회. © 복음기도신문

지난 2년 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교회와 열방의 회복을 소망하며 오는 12월 12일부터 4일간 2021 다시복음앞에 대회가 열린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성도들의 연합체인 복음기도동맹은 '그 영광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온라인대회로 열린다. 복음기도동맹은 복음과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준수하기로 결단한 성도, 교회, 기독교단체들의 연합모임이다. 이번 대회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메신저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사회와 교회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영광의 회복'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대회의 주제와 강사에는 '복음, 그 영광의 회복'에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성도의 소명 회복'에 에릭 폴리, 현숙 폴리(순교자의소리), '나라와 민족의 회복'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임현수 목사(KIMNET 공동 대표), '교회의 회복'에 박종근 목사(고현교회), '선교의 회복'에

주누가 선교사(GO선교회), '기도의 회복'에 최상훈 목사(화양교회), '다음세대의 회복'에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김용의 선교사(LOG미션)가 맡는다.

이번 대회의 줌 링크 주소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정보를 '2021 다시복음앞에' 밴드에 계속 업로드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공개 밴드로 운영되는 이 대회 SNS 주소(<https://band.us/n/a3a662QfMcIeF>)를 클릭하면 추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다시복음앞에 정보국에서 제공하는 말씀 본문과 기도 제목을 열람할 수 있다. 정보국은 릴레이 금식기도를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2011년 '오직 은혜의 복음'이란 주제로 시작된 다시복음앞에 대회는 2013년 '오직 성경', 2015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16년 '오직 하나님께 영광', 2017년 '오직 믿음', 2019년 대회는 '십자가 복음'을 주제로 이어져 왔다. 문의: 010-8453-4641, 010-5663-4641, gnpall@hanmail.net [GPNEWS]

중국, 가정 교회 활동 금지·통제하는 '종교 성직자 조치' 발효

중국 당국이 가정교회 활동을 금지하고 교회 통제를 강화하는 '종교 성직자 관리에 관한 조치'를 올해 초 발효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2018년도의 종교 업무 규정을 보완한 '종교 성직자 관리에 관한 조치'는 중국의 5개 국영 종교단체인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 삼자애국교회, 중국가톨릭애국협회에 소속된 성직자의 자유를 제한하며, 미등록 단체 성직자의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 그중 제3조는 성직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통치, 중국 사회주의 정치 체제, 중국 공산당의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최대한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 제6조와 12조는 각각 성직자가 "불법 종교 활동" 및 "종교를 이용한 해외 침투(선교)"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대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침략적이고 포괄적인 통제 시스템을 동원해 성직자에 대한 감시를 확장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성직자의 충성을 공고히 하고자 정치적 시험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모호한 조항은 독립적 종교단체, 소수 민족 종교단체, 외국과 관련이



▲ 중국 당국이 가정교회 활동을 통제하는 '종교 성직자 조치'를 발효했다.

있다고 판단되는 종교단체를 단속하기 위한 광범위한 구실로 사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 감시 단체인 차이나 에이드(China Aid)도 이번 새 규정이 중국에서 불법인 가정교회를 "중국 공산당과 삼자 교회의 주요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국가종교청이 신규 및 전 현직 성직자들을 감시하고, 엄격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직자를 감시하기 위해 다른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새 규정이 도입된 이후 중국 당국은 허베이성 신샹의 조셉 장웨이주 주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지하 가톨릭 사제들을 구금하거나 체포했다. 또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에 위치한 런아이 개혁교회 소속인 장 춘레이 장로와 리빙스턴 교회의 양 후야 목사 등 가정교회 개신교 지도자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됐다.

중국은 오픈도어 선교회가 선정한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2020년 23위였다가 2021년 17위로 상승했다. 최근 3년간 무려 6계단이 올랐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에도 따르면, 중국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0건 이상의 기독교 박해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미국무부는 올해 초, 중국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가담하거나 용인한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에 지정했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유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내전, 전쟁범죄 수준 잔학행위 벌어져'

1년 동안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에서 내전 당사자인 정부군과 민병대 모두 민간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과 살해, 집단 성폭행, 대량 추방 등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잔학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에티오피아 국가인권위가 3일 발간한 공동 보고서에서 밝혔다.

인종청소나 민족말살까지 우려되는 티그라이 내전을 속히 종식시켜 주십시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성폭력으로 고통하는 여인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집단 기아에 직면해 있는 주민 600만 명을 살려주시며,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아비 아머드 총리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해주시어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지도자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 "韓 디지털 성범죄 심각... 끔찍하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4일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HRW는 최근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과, 모델 종업원에게 뇌물을 주고 모든 방에 카메라를 단 일당이 붙잡힌 사건을 언급하면서 "끔찍하다"고 논평했다.

남녀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욕으로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들을 성범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한국의 모든 영혼에게 선포되어 더 이상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혼들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나이지리아 성도 수십 명 납치... 기독교운동가들, 정부에 행동 촉구

최근 나이지리아의 카두나 카카우 다지에 있는 임마누엘침례교회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1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넘는 이들이 납치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기독교 인권운동가들은 "정부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이지리아 정부 당국자들에게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주시고, 성실함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섬기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주시고, 고통받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11월 22일 ~ 12월 11일

11월 22일 ~ 11월 27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1.22~26(10-16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11.24(0-24시) ▶제주 조천 / 함덕제일교회(박**)010-5002-2046, 11.26(10시)-27(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11.26~27(09-21시) ▶전북 전주 / 주소양교회(최**)010-4661-4039, 그 외 6교회 진행중.

11월 29일 ~ 12월 4일 11.29(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1.29-12.3(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1.29-12.4(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1.30,12.2-4(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2.3(12시)-4(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4교회 진행중.

12월 6일 ~ 12월 11일 12.6(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2.6-10(09-16시)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12.6-10(10-13시) ▶전북 전주 / 주를따르는교회(온라인,중)(김**)010-4743-9397, 12.6-11(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선교회(권**)010-7754-1726, 12.7-10(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12.9(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박**)010-7709-0691, 12.10(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9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미얀마 현대사, 쿠데타의 연속... 기독교 핍박 확대 우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10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군사정권에 대한 무장항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얀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얀마 선교 방향에 대해 현지 전문가의 시각을 소개한다. <편집자>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군부 쿠데타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 미얀마. 미얀마는 인구의 약 90%가 불교도이며 135개 종족이 삶을 함께하는 다민족국가로, 주종족인 버마족을 비롯해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다.

퓨족의 후예 '버마'족의 세력 확대

9세기경까지 선주민인 퓨족이 살고 있던 미얀마에 퓨족의 후예를 자처하는 버마족들이 세력을 확대하여 11세기경 아노야타 왕이 버마족을 통합하여 바간 왕조를 세웠다. 그는 문족으로부터 상좌(소승) 불교를 도입하여 대대적으로 불교를 육성했다. 바간 왕조는 6만여 개의 크고 작은 사탑과 절을 남기고 13세기경 몽골의 침략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후 미얀마는 1886~1948년까지 영국(59년)과 일본(3년)의 식민지배를 거치며, 1948년 1월 4일 공식적으로 독립했다. 이때 미얀마의 국부로 추앙받는 독립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활약은 지대했다. 아웅산 장군은 미얀마 독립운동을 위해 '30인 동지회'를 이끌며 영국을 몰아내기 위해 일본을 이용했는데, 이후에는 영국을 이용해 일본을 몰아낸 정략가(政略家)다. 그러나 그는 내각 회의 중 암살을 당하고 '우 누'가 버마의 초대 총리가 되면서 혼란한 가운데 독립을 했다.

군부 쿠데타의 연속선상인 미얀마 현대사

미얀마의 현대사는 한마디로 군부 쿠데타의 연속선상에 있다. 1948~1961년까지 민주주의 혼란기를 보내고, 1962년 '네윈'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선포하며 버마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로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전락한다. 1988년 미얀마 기술대 학생과 군인과의 개인적인 싸움이 도화선이 되어 경제적인 불만이 쌓여 있던 미얀마 전체 국민의 민주 항쟁이 일어나게 되자 '소 마웅'은 군부 내 쿠데타를 일으켜 네윈을 실각시키고, 국명을 버마

에서 '미얀마'로, 랭군을 '양곤'으로 바꾸는 등 여러 지명을 개칭한다.

1988년부터 미얀마는 사회주의 노선을 버린 가운데 강한 군부독재 국가형태로 군부가 2010년까지 집권했다. 1988년 이후 아웅산 수찌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1990년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군정은 이를 무효화시키고 수찌 여사를 가택 연금했으며 총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1992년 4월 '소 마웅'이 건강상의 문제로 권좌에서 물러나자, '탄쉐'가 모든 권력을 이양받아 부패 청산이란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며 2011년까지 19년간 집권했다.

2010년 11월, 인권 문제를 들어 미얀마를 아세안 10개국의 경제동맹체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미얀마 군정은 수찌 여사를 드디어 풀어준다. 하지만 2010년 총선에서 야당(NLD)이 보이콧을 선언해 총선에서 여당(USDP)이 압승했고, 자동으로 2011년 군복을 벗고 출마한 '떼인세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2015년까지 집권했다. 그런데 2012년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수찌 여사가 이끄는 NLD당이 8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으며 45개 투표지역 중 43개 지역을 승리로 장식했다. 이후 2015년 11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수찌 여사가 이끄는 NLD당이 88%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미얀마 헌법상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으므로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수찌 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찌 여사는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 실질적인 통치를 하게 됐다. 그렇게 2016년부터 본격적인 미얀마의 민주주의 초기 단계가 시작됐다.

문제는 군부가 치외법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군부나 경찰을 통솔할 수 없었다. 또한 국회 의석의 25%를 자동으로 군부에 할당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합법적으로 바꾸려 해도 군부가 반대하면 못 바꾸는 실정이었다. 현행법상 국가적 중대 사안은 군부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 11월 총선 투표와 관련해 행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을 실정법 위반이라고 빌미 삼으며 군부는 부정 선거라는 명분하에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사실 쿠데타의 직접적 요인은 코로나19 속에 치러진 총선에서 예상외로 NLD당이 압승하여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차지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군부가 기독교 및 권력 유지의 불안감을 느껴

중국의 묵인 하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또한 군 총사령관인 '우 민 아웅 흘라임'이 총사령관직 임기 만료가 되어 은퇴를 해야 하는 데 아웅산 수찌 행정부가 그의 임기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쿠데타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그것은 쿠데타 이후 우 민 아웅 흘라임이 군 총사령관의 임기 제한을 없애버린 것에서 증명된다.

임시정부와 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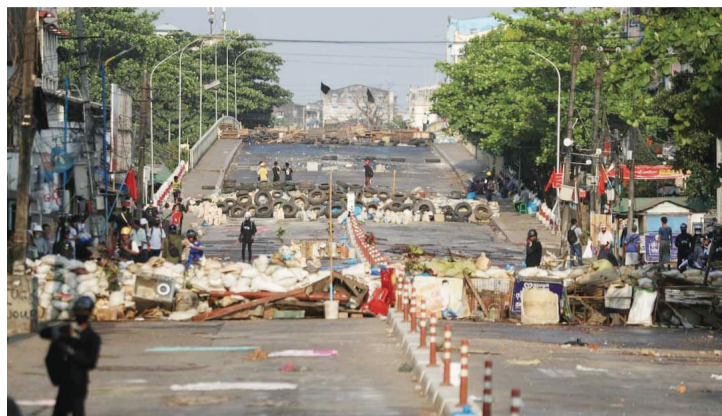
현재 수찌 여사와 지난 행정부 수반들은 감금되어 있고 군정은 NLD당을 해체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약속했던 1년 6개월 후 재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작업 중의 하나이며 반군부 활동의 예봉을 꺾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NLD당 세력을 포함한 종족 연합으로 세워진 임시정부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각 종족들의 합의를 끌어내며 연방군을 결성하여 현 군정과 대결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연방군을 결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방군에 합류해야 하는 야카인족(AA), 까렌족(KNU), 까야족(KNDF), 친족(CDF) 등의 종족별 반군 단체들이 현 군정과 전면전을 피하며 정전 협정상태에 들어가 있다. 미얀마의 임시정부가 집권하여 민주주의가 승리한다 해도 중국은 차치하고 주변 국가인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태국은 현 집권 세력이 군부요, 나머지 두 나라는 공산국가로서 아랍의 봄처럼 연쇄적인 시민 혁명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 군정은 1년 6개월 후든, 언제든 본인들이 자신감이 설 때 재선거를 실시해 군부 세력의 장기 집권을 피할 것이다.

개신교 현황...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 전래 이후 208년

개신교 역사는 1813년 7월 13일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얀마 입국 이후 올해로 208년을 맞았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전체적으로 이렇다 할 부흥이 없었다. 1962년 미얀마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이전에 공식 250여 명(비공식 1000여 명)



▲ 군부 쿠데타 이후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미얀마. 제공: YDJ 선교사

이 넘는 서구 선교사가 있었으나 모두 추방됐다. 헌법상 현지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나 형식상이다.

2016~2021년 1월까지의 아웅산 수찌 정부 집권 시에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군정 때보다 자유로움이 분명히 있었다. 특히 교육 제도의 개편과 소수 종족들의 행정부 요직으로의 진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의 정치 및 행정부 수반 진출 또한 이루어졌다. 부통령 1인과 하원의장이 소수 종족출신 기독교인이었으며, 각 주별로 기독교인들이 요직에 진출함에 따라 기독교계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쿠데타에 대해 미얀마의 최대 교단인 침례교단과 복음주의 계열의 '미얀마 복음주의 기독교 연합회(MECA, 부통령 소속)'가 쿠데타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군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이나 탄압을 받을지 장시간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4년 유엔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의 종교는 전 인구 약 5500만 명 가운데 불교 88%, 기독교 6%, 이슬람교 4%, 기타가 2%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 종족 중 '친'족 약 100만 명 중 90%, '까친'족 약 80만 명 중 70%, '까렌'족 약 300만 명 중 40% 등의 기독교 인구 성장이 있다. 그러나 자기 종족 중심의 성장이며 다른 종족으로의 복음 전파가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유로는 자종족 중심주의, 다른 종족과의 갈등, 지역 간의 거주 이전이 힘들, 사회적인 종족 차별 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불교도들의 고발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는 폐쇄된다. 불교도들은 이슬람교는 폭력적이라

고 하여 매우 싫어하나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면이 있다. 기독교는 선행을 많이 하는 좋은 종교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여긴다. 그래도 나면서부터 불교적 생각과 삶의 방식에 젖어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크신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매우 힘들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 예상

현재 대도시 중심으로 현 군정에 대항하는 측면에서의 폭발물 투척이나 정부 건물 방화와 군정에 협조하는 이들을 살해하는 일들이 도심에서는 산발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얀마인, 외국인 모두 외출이나 주거지 선택 시 조심해야 한다. 이전 군부 치하에 비밀경찰이 있었고 인터넷이 안 되던 시기에도 사역은 조심스럽게 진행했다. 따라서 좀 더 조심하며 주의를 기울이면 선교는 가능하다. 물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직접적인 복음 전파보다는 간접적인 복음 전파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군부는 예전부터 불교도의 민심을 얻기 위해 불교 우위 정책을 시행해 왔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강성 불교도들이 군부와 연계해 타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유·무형의 핍박이다. 당분간 기독교 활동이 통제와 감시하에 위축될 것은 자명하다.

맺는 말

현재 미얀마는 군부 집권이 기정 사실화되어 가는 가운데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군부도 어떻게 손을 쓰기가 어려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들은 심각한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함께 현재 겪는 희생과 아픔의 시간으로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강한 불교적 세계관은 약화되어 복음 전파의 더 큰 결실을 이루어내기 위한 움츠림의 시간이 아닌지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선교타임스 · GP선교회 제공) [GPNEWS]



▲ 미얀마의 성도들. 제공: YDJ 선교사

기획 | 창조 이야기 (64)

기독교 가정 자녀들 75%, 진화론을 배우며 믿음을 잃었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의 해석을 갖다 붙였을 뿐, 화석의 기록은 없다. 화석을 파내서 4000만 년 됐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들은 “화석은 진화를 이해하는데 공헌했다.”고 배운다. 다윈은 “만일 나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수없이 다양한

진화론을 믿는 고생물학자 데이빗 라우프는 “다윈 이후로 수년 동안 그의 대변자들은 예측 가능한 진보적 발견을 소망했지만, 그것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낙관주의는 죽기 어려웠고 어떤 순수한 환상이 교과서를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말했다. ‘환상’은 거짓말이라는 뜻의 고상한 단어일 뿐이다. 흙 속에서 발견한 화석에 대해 아는 것은 그것이 죽었다는 것뿐이다. 그것이 자식을 낳았는지도 증명할 수가 없고, 또한 자기와는 다른 종류의 무언가를 생산해 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

항공우주 엔지니어 루터 선더랜드는 전 세계 주요 진화론자들에게 진화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또 영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1962~1993년 동안 관장을 역임했던 고생물학자 폴른 패터슨에게 편지를 보냈다. 왜냐하면 패터슨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화석 컬렉션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패터슨은 진화론에 관한 책을 썼지만, 어떤 중간체도 보여주지 않았다. 선더랜드는 편지를 통해 “왜 당신의 책에 중간체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중간체의 사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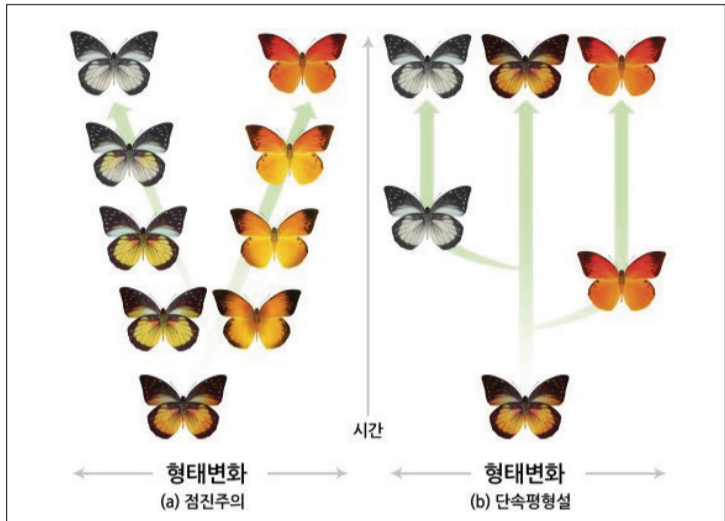
보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패터슨은 “저의 책에 진화적 변천이 부족하다는 당신의 언급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화석이란 살아있는 것이든 만일 내가 하나라도 알았더라면 그것을 확실히 넣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런 화석은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중간체는 없다. 아니, 진화 사슬 전체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고생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굴드도 “중간단계 화석증거의 부재는 진화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문제”라고 밝혔다.

닐스 엘드리지와 스티븐 굴드는 리처드 골드슈미트가 제시한 ‘단속평형’이론(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 종의 진화 양상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큰 변화 없는 안정기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속한 종분화가 이루어지는 분화기로 나뉜다는 진화 이론)을 부활시켰다. 골드슈미트는 ‘첫 번째 새는 파충류의 알에서 부화했다.’고 주장했다. 중간체를 단 하나도 찾지 못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중간체 화석이 없는 것)은 진화가 빨리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충류 알에서 부

화한 이 새는 무엇과 짝지었는가? 한 쌍이 되어 자식을 낳으려면, 같은 곳에 다른 성별도,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두 마리가 있어야 한다.

이들은 또 아이들에게 비평적 사고를 가르친다면서 질문한다. “어떤 이론이 유기체의 진화를 가장 잘 묘사하는가? 진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계통점진론인가, 아니면 짧은 기간에 일어난 단속평형론인가?” 쉽게 설명하면, ‘느린 진화’ 아니면 ‘빠른 진화’ 중 어떤 이론이 최고의 설명인지를 고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코끼리가 오렌지색인가 아니면 핑크색인가를 묻는 것과 같다. 이들은 ‘진화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을 적는 아이들에게 틀렸다고 할 것이다. 이런 교육은 아이들의 믿음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은 진화론의 답을 쓰기 시작한다.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의 75%가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 [GPNEWS]



▲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굴드는 중간단계 화석증거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단속평형설을 주장했다. 출처: 한국통합생물학회 캡처

진화론자들은 아이들에게 화석이 진화를 증명한다고 가르친다. ‘화석의 기록으로부터의 진화의 증거’ 이것은 거짓말이다. 화석 기록은 없다. 흙에서 파낸 뼈들에 인간

중간체 종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과서에서도 “다윈 이래로, 많은 중간체들이 발견됐다.”고 적혀있지만, 모두 거짓말이다. 어떤 중간체도 찾지 못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첫째, 모든 죄로부터 돌이킨다. 회개한 사람은 죄와 영원히 적대 관계에 놓인다. 모든 죄가 그렇다. 둘째, 사탄으로부터 돌이킨다. 회개한 사람은 사탄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 셋째, 회개는 세상으로부터 돌이킨다. 돈에 절하거나 자기의 명예를 우상시하거나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던 비참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라고 고백하게 만든다. 넷째, 회개는 ‘자기의’로부터 돌이킨다. 회개하여 변화된 사람은 자기의 의를 누더기 옷처럼 여긴다. 주님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리스도의 모든 뜻과 목적을 예외 없이 전부 받 아들이며 그리스도를 전부로 붙든다. [GPNEWS]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얼라인)에서 발췌

인도 뱅갈로=탁성현



선교 통신

신에게 바쳐진 여성 ‘데바다시’... 평생 힌두교의 성노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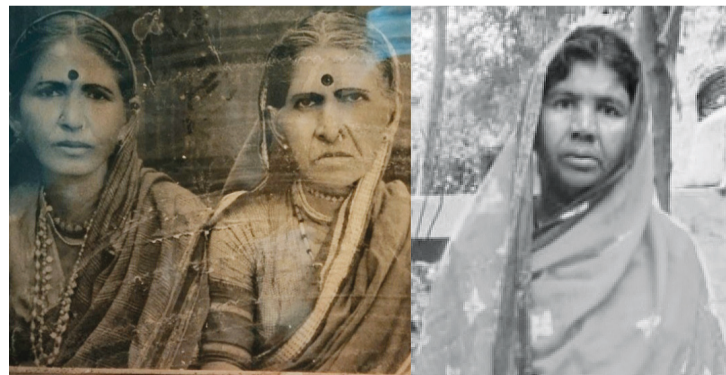
인도의 남부지방에는 붉은 구슬로 만든 목걸이를 건 여성들이 있다. ‘신의 하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힌두교 여신이나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여성을 뜻하는 ‘데바다시’라고 한다. 사춘기 전에 신(神)과 결혼 의식을 치른 데바다시는 첫 월경 후 팔려가 상층계급 남성들의 소실이 되거나, 마을 남성들이 공동으로 범하는 성 노리개로 살아간다. 마을 남성들은 돈을 추렴하여 데바다시를 얻어 무료로 욕정을 푸는데, 이는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에 몸을 바쳤던 매춘부의 기원이 담겨 있는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매춘부는 여성을 신전에 바치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고대 신화에 따르면 숫처녀들은 신전에 머물며 성지를 찾는 남성들에게 몸을 바쳤다. 이때 남성들은 여인을 취한 대가로 신전에 성금을 바쳤고, 이 돈은 신전의 운영비로 쓰였다.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는 데바다시 여성들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수녀들은 데바다시 여성들이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했다. 상류층 남성들은 그녀들과 물컵도 함께 쓰지 않지만, 몸은 사용한다며 그들을 비난했다. 천민 출신인 데바다시는 보통 10달러 미만의 헐값에 팔린다. 대부분은 사랑하지 않는 남성의 첩살이는 물론이고 생계를 위해 늙어서도 공사장을 전전한다고 한다. 그나마 접이 된



▲ 인도 한 여성의 증조 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까지 삼대가 데바다시였다. 제공: 탁성현

경우는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나, 마을 공동의 성노예가 된 경우에는 한시도 쉬지 못하고 남성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된다.

붉은 목걸이를 거는 순간 영원한 성 노리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19세기 이후 법으로 엄격히 금지시켰음에도 현재 1만 5000여 명이 신전에 바쳐지고, 비참한 인생을 견고 있다고 한다.

1만 5000여 명의 여성들 신전에서 비참한 삶

데바다시 풍속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 전통 때문이다. 인

도인들은 초경을 하지 않은 소녀를 신에게 바쳐야만 우주를 관장하는 남신(男神)의 노여움을 받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신에게 처녀성을 바치는 풍속은 토속종교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인도에

서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 현지 단체 ‘평화의 광선(Ray of peace)’은 ‘샤론의 장미(Rose of Sharon)의 집’을 세워 카르나타카주에 있는 데바다시 여성들을 구출하고 있다. 현재 그곳에 4명의 데바다시 여성들이 있고 신앙교육과 직업교육 등 총체적 훈련을 한다. 더 많은 데바다시 여성들이 오도록,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도움의 손길들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4)

인도의 영혼들이 데바다시와 같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인 악한 풍속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시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데바다시 여성들을 구출하는 사역 가운데 묶여 있던 사슬들이 풀려져서 더 많은 여성들이 총체적인 복음을 만나 회복되길 소망한다. [GPNEWS]

인도 뱅갈로=탁성현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복음이면 충분했어요”

복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김재영 선교사(브라질 마까파)



© 복음기도신문

김재영 선교사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한 달 전 브라질 마까파로 거처를 옮겼다. 브라질에서 이민 2세로 태어난 그에게는 그곳이 낯설지 않다. 그러나 선교사로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지금,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오직 복음으로만 브라질의 영혼들을 섬기겠다는 김재영 선교사를 인터넷 화상으로 만났다.

- 어떻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브라질로 이민을 오시고 제가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신학을 하시고 제가 10살 때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가게 되셨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목사 같은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읽는 친구였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고 했죠. 저도 재미있을 것 같이라며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러다 15살 즈음 예배에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선교사 콜링을 하셨어요. 선교사로 순종할 사람들을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눈을 떠보니 강대상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군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모두 제가 목사를 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5살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했어요

- 청소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셨군요. 이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일반적인 선교사가 아니라 의료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의료 선교사를 꿈꾸고 있어서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며 가정사역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1997년에 한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 스승이었던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노동자로 온 페루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한국에 오기 전 파라과이에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주노동자를 섬기면서 신학공부도 하며 목사안수까지 받게 됐어요.”

- 보통은 신학을 하면 일반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이주민을 섬기셨군요.

“페루 사람들을 섬기는 중에 어떤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상담을 했었는데, 이 부부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6개월 정도 상담을 하면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상담도 잘 진행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연락이 왔어요. 빨리 와달라고 하더군요. 큰일 났구나 싶어 가보니 아내는 머리가 부어 있고, 남편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였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수습을 하면서 이 사건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상담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몇 달 고민했어요. 결국 이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됐고 얼마 후 두 사람과 각각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어요.”

- 상담에서 제자양육으로 바뀌었군요.

“제자양육을 하면서 이들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다시 합쳐더군요. 이것을 통해 심리학이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정사역도 말씀이 아니면 가정을 살릴만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사역으로 인도해주셨어요.”

- 그러면 이후에 선교 준비를 하셨을텐데 과정이 궁금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15살 때 선교사 콜링 이후, 계속 선교와 관련된 곳에 있으면서 한 번도 선교사 외에 다른 꿈을 꾸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 친구들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를 할 줄 알면 큰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재능을 낭비하고 선교사를 하냐고 말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항상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본격적으로 2006년 1월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5월에 아내와 만나게 되고, 10월에 목사안수와 선교사 파송을 받고 12월에 결혼을 했어요. 드디어 다음해 1월 23일에 페루로 들어가게 됐죠.”

- 목사안수와 결혼과 선교사 파송까지 급박하게 이뤄졌네요. 선교지에서는 어떠셨어요?

“페루에 도착해 선임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예배 회복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 어떻게 사역할지 고민이 됐어요. 갑자기 현지 목회자들을 찾아가 예배 회복에 대한 마음을 받았으면서 같이 사역하고자 하면 함께할 사람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큐티(Quiet Time,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와 말씀묵상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시간)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며 7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분에게도, 저에게도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렇게 2008년부터 큐티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 큐티사역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현지 목사님 2명과 팀을 이뤄서 사역을 이끌어나갔어요. 주된 사역

“처음 팀을 받으면서 늘 섬겨왔던 또 하나의 단기선교팀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느 때는 팀들 숙소를 따로 마련했는데, 그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아웃리치팀이 집에서 지내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내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였거든요. 서로가 힘들고 지친 상태였고 팀이 있을 때 싸우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팀도 뭔가가 이상했어요. 다른 선교팀과는 달랐죠. 기도하는 표현도 뭔가 세고요. 그러다 하루는 팀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결론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곧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데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때만큼은 참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이 거울이 돼서 자신의 내면을 들춰내고 회개했어요. 이 팀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은

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사역이 가장 성장하고 있을 때여서 멈출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안식년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죠. 몸이 지치거나 연구가 필요한 시점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안식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하고 안식년을 지내기 위해 미국 장인어른 댁으로 갔어요.”

안식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안식 경험

- 안식년은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말씀을 2시간씩 읽고 기도하는데 큰 힘을 얻었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언제 가장 행복하리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생각해보니 사역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면의 음성으로 사역할 때도 아니고, 가족과 있을 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실패하고 망해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여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돌아보니 정말 사람들을 많이 의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먼저는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에 많이 매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됐죠. 그 이후에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물론 나의 책임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다른 두려움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갖게 됐어요.”

-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영혼이 회복이 되셨군요. 정말 안식하셨네요.

“안식년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주위에서 선교사가 쉬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 사역지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들이 들렸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러다 장인어른이 섬기는 한인 교회에 교육전도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이전 같았으면

(6면에 계속)



▲ 브라질 마까파 지역에서 열린 복음학교 현장. 제공: 김재영 선교사

으로 큐티책을 인쇄하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큐티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누가 사역지를 맡게달라고 하면 저는 사역지가 없었어요. 기존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게 주 사역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한다면 작게는 페루고, 크게는 남미였어요. 사역이 바빠지면서 가족을 돌볼 만한 여유가 없어졌어요. 사역적으로는 성장하는데 마음은 메탈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2011년에 순회선교단에서 훈련을 받고 페루에 온 아웃리치팀을 받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변했어요.”

-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와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 어떤 은혜였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내가 복음을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소개하는 복음학교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 미주 복음학교에 참여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어요. 그러나 복음학교를 한 이후에도 내가 스스로 힘을 내서 새 생명으로 변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이대로는 안되겠다며 안식년을 가져야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빛나는 믿음 (1)

멈춰진 지금, 선한 길로 행할 절호의 기회

일생에 한 번 겪기 어려운 한 가지 이슈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일사단란(一事多難)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코로나 사태이다. 폐렴 바이러스균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대유행이 벌어졌다. 코로나19는 거대한 세계적인 장벽이 되어온 세계를 멈추어 서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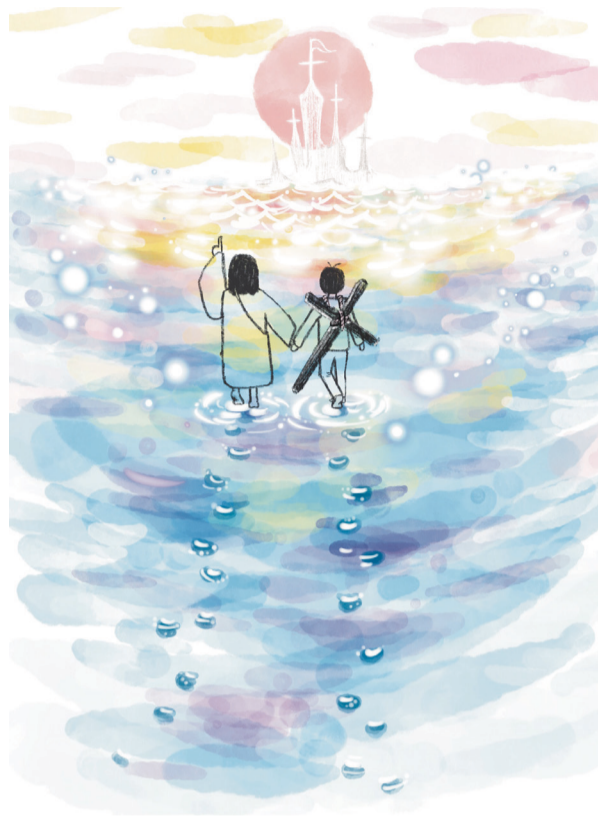
멈추어 선다는 건 쉬운 게 아니다. 태어나면서 울음을 터트리며 시작한 인생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자의적으로 인생을 멈추는 일은 사실 불가능하다. 태어난 이상 마치 런닝머신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쉴 새 없이 계속 달려야 한다. 생존경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주변에서 그냥 두지 않기도 하고 계속 떠밀려간다. 멈춰 설 수 없는 인생,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멈춰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렘 6:16)

눈코 뜰 사이 없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면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처럼 멈출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볼 겨를도 없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점검해볼 사이도 없이 살아온 인생. 왜 사는지, 이런 궁극적 질문은 뒤로하고서 먹어야 살고, 뉘쳐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피 말리는 생존경쟁에 떠밀려 살아가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 문제는 대부분 그렇게 떠밀려가다가 망한다는 것이다.

조금만 멈추고 살펴보았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일러스트=이예민

지만 알았다더라면, 계속 가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

줄만 알았다더라면 헛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멈

춰 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가 없었던 것! 이것이 바로 인류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공통의 주제였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다. ‘멈춰 서라! 너의 인생 잘 가고 있는 줄 알지만 멈추라!’ 불행하게도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멈추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강제로 멈춤을 당했다. 지난 한 해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모든 사람이 함께 물리적으로 멈춤을 당한 것이다. 바쁘게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좌우를 볼 겨를도 없다가 멈춰서 보니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그토록 거대해 보이고 탄탄해 보이던 세상의 실체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났다.

이 세상의 형편이 그냥 잘 달려갈 때는 제대로 가는 것만 같고 그 세상 외에는 보

이는 게 없더니, 세상이 멈춰 있을 때 보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인지 보게 됐다.

성경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어둠 속에서 달음질하고, 세상의 향락과 사치와 성공에 미쳐 달려가며, 어쩌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실재처럼 느껴지던 세상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선진 문명의 의료시스템, 국가의 힘, 국제관계들이 바이러스 하이에 얼마나 힘없고 허망한지 모두 드러나게 되었다. 세상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나온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할 절호의 기회이다. (2021년 1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삼성연합의원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태복음 9장 35절)

병원을 주님께 드리며 재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 “함께 해요”

대상자

- 목회자: 목사, 전도사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삼성초대교회와 선교동역하실 분
- 전문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간병사 그 외 의료 전 분야에 걸쳐 환자 선교의 사명을 가진 분

삼성연합의원 · 삼성초대교회 | 문의 ☎ 010-8528-3217

선한사업 / 선한기업

엘타임

선한사업 디모데전서 6:17~19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기업 잠언 16:8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 전문소방시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문의 : 033)761-0078

안전 제일

Interview <5면에 이어>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나는 현지인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거절했을 텐데 나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넘겨졌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했어요.”

- 한인들도 섬길 기회가 있으셨네요.

“청소년부를 섬기게 됐는데,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역을 시작하고 몇 주 후 수련회가 있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전하기로 했어요. 물론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다른 프로그램은 다른 사역자가 왔을 때 할 수 있다며 제가 있는 동안에는 복음 앞에 아이들이 서면 좋겠다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복음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지나며 오직 복음으로만 다음세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G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과 함께. 제공: 김재영 선교사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다음세대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도 정말 몰랐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신앙 훈련을 받으며 나의 현재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눈앞에서 내 자식이 침몰하는 세월호 속에서 죽어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사실 세월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월호 속에서 자신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다음세대가 침몰해 가고 있음을 보면서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기껏 화요일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어 보려고 했다.

우리 아이들은 일반 학교에 다녔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잘 키워주셨다. 물론 다른 대안도 없었다. '가정에서 믿는 부모가 잘 양육하면 되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실상은 다음세대의 영혼이 세속화라는 벌레에 갇혀 먹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

언젠가 딸이 한 말이 떠오른다.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일러스트=고은선

하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하고 끊을 때마다 “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상속자로 당당히 살아.” 몇 번을 이렇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엄마, 나 어렸을 때 그런 말 자주 들려주지.” 나는 “엄마가 모태신앙이었어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해서 너희들이 클 때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다. 미안해.” 전화를 끊고 한동안 목놓아 울었던 기억이 났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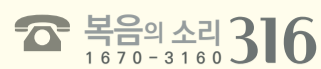
알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은 강조했지만 나조차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새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복음이다. 그런데 나는 매일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가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민과 고통을 끌어안고 살았다.

앞서 선교관 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는 가치관까지의 변화'라고 했을 때 내심 선교를 포기해야 했다. 나를 보면 가치관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는 선교가 불가능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복음을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깨닫게 됐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나의 가치관까지 새롭게 하셨다는 진리에 아멘하게 하셨다. 진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명확하게 새기게 하신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히스토리 메이커(History maker)를 기르는 최전방 개척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다는 마음을 주셨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성경적 세계관을 내가 먼저 살 것에 대해 결단하게 하신다. 지식으로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실 주님만 기대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PNEWS]

최영신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이직을 위해 이력서를 위조했습니다

Q 40대 형제입니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위조했던 일이 양심에 걸려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을 5번 옮겼는데, 이런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 회사 직원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건가요?

A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곧 '주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5번이나 직장을 바꾼 적이 있으므로 당신의 결정은 분명 가족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신뢰는 주님의 때에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은유함과 오래 참음을 동반한 사랑으로 형제님의 양심에 말씀하신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계속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말과 행동에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부정직한 이력서로 퇴사하는 일이 정말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이 이유를 빌미로 직장을 옮기고 싶은 건 아닌지 말씀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매일 주님과 친밀한 묵상의 시간을 꾸준히 가지길 권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시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분명 가족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믿음의 선한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양심의 찢림을 빌미로 혹여 자기 추구의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GPNEWS]



北 보위원들마저 식량 부족... 보위원 권력 휘두를까 주민 우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 당국이 최근 보위원들에게 두 달 치 식량을 공급했지만 양도 부족하고 가족분도 누락돼 있어 보위원들의 사기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최근 보도했다.

북한 당국은 '사상전의 전초병'이라고 선전하는 보위원의 가족분을 제외했고,

본인분도 20%를 삭감했다. 여기에 1차 조정된 현미를 공급했는데, 껍질을 벗겨낸 겨들도 섞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대로 된 쌀은 기존의 50~60%밖에 안 줬다.”며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으로 인한 주민 감시에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공급도 안 주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소식통의 전언이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특히 가족분을 챙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위원 가족

이라고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안 해주면 뭘 먹고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는 울분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에서 원인불명의 호흡기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보도했다. 평안북도 문덕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3일 “북한에는 아직 코로나 확진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 하지만 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두고도 결핵이나 독감 등 다른 병에 의한 사망으로 발표하면 일반 주민들은 알 수

또한 이런 상황이 주민들에게까지 전해져 “배급을 제대로 못 받은 보위원이 권력을 이용해 우리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불안감이 터져 나오고

北, 호흡기 질환 사망자 속출... 코로나 사망자 없을까?

없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발열과 기침증세로 병원을 찾아가면 코로나라고 진단을 내리지 않고 독감이나 폐렴, 결핵이나 영양실조로 진단을 내린다면 중앙의 간부나 직접 담당했던 의사 외에는 환자가 코로나로 사망했는지, 다른 병으로 사망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요즘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주변에서 독감환자들이 부쩍 늘어나는 동시에

있으며 “보위 기관까지 공급이 안 나오는 걸 보니 상부의 곳간도 텅텅 빈 것 아니냐.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코로나가 아닌 영양실조나 독감에 의한 사망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청진시 청암구역의 한 지역에서 며칠 사이에 10여 명의 결핵환자가 독감 증상을 받고 무리로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병원측은 영양실조에 따른 건강악화로 사망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발열증세를 호소하다가 독감에 의한 폐렴으로 진

한편, 함경북도에서는 주민들에게 지난 9·9절(10일 치) 이후 식량 공급을 중단한 상태로, 도에서는 정상화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GPNEWS]

단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측에서는 환자들의 사망소식만을 가족에게 알리고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시신을 곧바로 인근 산에 매장했다.”며 “병원을 찾은 환자의 가족과 주민들은 ‘환자가 무슨 증상을 보였으며 정확한 사망원인이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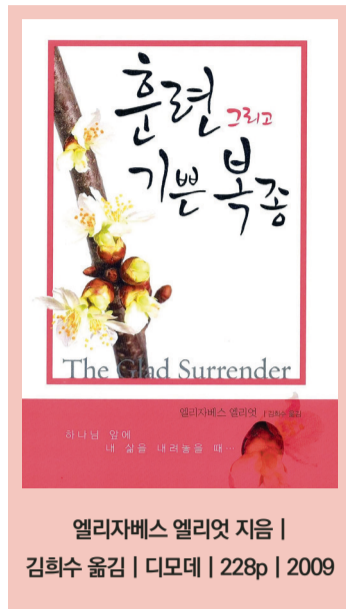


▲ 북한에서 식량 부족으로 보위원들마저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처: 모퉁이들선교회 캡처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엘리자베스 엘리엇 <훈련 그리고 기쁜 복종>

“훈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는 자들의 응답이다”



훈련과 복종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원치 않을 때가 있다. 이 책은 제목이 보여

주듯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복종은 기쁜 일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제자의 삶은 복종의 삶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훈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는 자들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향하신 창조자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한다." 이것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다. 저자는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놓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지만, 한 인간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아멘'하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쁘게 복종하는 제자의 삶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육체, 마음, 지위, 시간, 소유, 일, 감정의 훈련에 대해 설명한다. 육체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처소가 되도록 훈련할 것,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집중할 것, 어느 자리든 겸손히 섬길 것,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것,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누고 버릴 것, 사랑으로 소명을 감당

할 것,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 등에 대한 훈련을 받으라고 권면한다. 나 또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렵고, 세상 즐거움을 빼앗기 싫어 망설였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는 나의 고백과 실제 나의 삶의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영광을 구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도 은혜로 믿게 하셨다. 내게 있던 세속적 가치들이 성경의 진리 앞에 드러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다. 거기에 나를 드러 순종할 때, 주님이 주님 수준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이 더욱 믿어졌다. 한번은 주방 바닥을 청소 솔로 한번 문지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외치는 은혜를 경험한 적

이 있다. 남편과 자녀를 섬기고 돕는 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섬기는 은혜를 주셨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온 열방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열방의 영혼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믿게 해주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나의 지나온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 책을 덮으며 표지 뒷면의 글귀가 마음을 울렸다. "제자 훈련은 단순히 자기 발전을 위한 전략이나 특별한 절차가 아니다. 제자 훈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부흥하고 선교는 완성될 것이다. 마라나타! [GNNEWS] 김은영 선교사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광부>와 <간호사>

나는 화란(네덜란드) 유학 시절에 하루는 관광 가이드로 돈을 벌었다. 지금부터 49년 전이니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독일 광부와 간호사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 시간을 배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고, 독일 돈 100마르크를 벌었다. 그 후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있는 도시에서 주말마다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주말마다 6~7시간을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할 수 없었다. 생각해 보면 가난한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뜨거운 지하갱도에 들어가 사력을 다해서 석탄을 캐는 한국 광부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체 닦는 일을 비롯, 허드렛일도 하는 간호사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고독을 누군가 달래 주어야 했는데, 그들의 간청을 공부 때문에 들어주지는 못했다. 관광버스를 타고 온 간호사들 중에는 틈만 나면 한글 포켓 성경을 읽고 있었던 분들의 모습이 반세기가 가깝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힘들고 고된 일과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간호사들을 잊을 수 없다. 그런 신앙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켰다. 한편,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을 생각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난다. 때마침 박 대통령이 서거한지

42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5000년의 가난의 때를 벗고, 말 그대로 '조국의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임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재임 시절 독일어 통역관이었던 백영훈 박사의 기록을 보면, 박 대통령은 1964년 12월 8일 서독의 엘 하르트 총리에게 '국민을 먹여 살릴 돈을 빌려달라.'고 애절하게 호소를 하면서, '우리 국민 절반이 굶어 죽고 있다. 우리는 거짓말 안 한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는다.'고 울먹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가난한 조국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다는 집념을 가졌다. 지하 탄광 갱도에서 목숨을 바쳐 일했던 파독(派獨) 광부들과 동양에서 온 천사들이란 말을 들은 파독 간호사들이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는데 초석이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혁명을 한 박정희는 '하면 된다.'는 의지만 확고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는 말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절망과 기아선상의 우리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으나 돈이 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기에 누구 하나 도와준다는 나라가 없었다. 심지어 미국



▲ 당시 파독 간호사를 취재한 독일 현지 신문. 출처: 유튜브 채널 대구MBC 캡처

케네디 대통령에게도 문전 박대를 당했다. 미국이 5·16 혁명을 인정 못하니 원조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또한 국교도 없는 일본에 돈을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신흥대국 서독을 생각했던 것이다. 서독도 분단국가의 아픔과 패전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나라임을 보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도 전쟁의 빛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자.'라고 생각했다. 독일 측은 한국으로부터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해 주면 그것을 담보로 한국에 돈을 꾸어준다고 했다. 당시 한국은 40%가 실업자이고 국민소득이 79달러 시절이었다. 말하자면 세계의 저지국가였다. 독일 광부 30%가 대졸자들, 그들은 지하 1000m에서 생명을 걸고 일했다. 1977년까지 독일로 건너간 광부는 7932명, 간호사는 1만 226명이었다. 1964년 12월, 박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 우리 비행기가 없어서 독일의 상용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갔다. 박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는 독일에서 그토록

수고하는 간호사와 광부들을 만나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았다. 물론 광부들과 간호사들도 조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보고 애국가를 부를 때, 모두 눈물 바다가 되었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위대한 박 대통령의 예지와 영도력이 없었다면, 서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눈물과 땀이 없었던들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은 없었다. 1961년 5월 16일, 혁명하던 그 날 새벽, 박정희 소장이 장도영 참모총장에게 드리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우리들이 선택한 이 방법이 조국과 겨레에 반역이 되는 결과가 된다면 우리들은 국민들 앞에서 사죄하고, 전원 자결하기를 맹세합니다."라고 썼다. 박 대통령은 조국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당시 파독 광부들과 파독 간호사들도 생명을 걸었다. 그래서 모두들 박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었다. [GNNEWS]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대신대 총장)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10. 21 ~ 11. 10 (가나다 순)
개인 권순호 권혜령 김경선 김민석 김사회 김선례 김숙자 김신애 김애심 김유남 김정희 김혜신 노은옥 류영열 박경희 박민숙 박신희 서기석 송경희 송근우 신현경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우 석 은종숙 이삼연 이영심 이영옥 이은주 이종훈 이주선 이준진 이진희 장미자 조명숙 조재희 조형광 차익수 차주에 최근희 최정옥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게르교회 고현교회 김화제일교회 선한목자교회 꿈을이루는교회 모리아선교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새순교회 시흥교회 시은좌교회 신한테크 오보평강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처음사랑교회 토론도한인침례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총남, 다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